

## 소비자를 겨냥한 축산물의 안전성 홍보에 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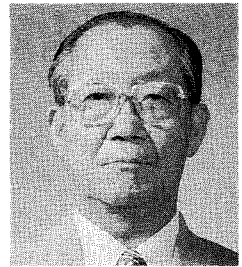
**전**국의 양축가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전국 각지에서 한국 축산업의 발전과 냉엄한 국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양축가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계절풍을 따라 날아오는 황사가 유난히도 많고 세계적으로는 광우병과 구제역이 만연되고 있어서 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축산물의 수출과 소비가 감소하여 축산농가들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 축산업을 결코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아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7월5일(목요일)부터 8일(일요일)까지 우리 축산인들의 축제인 2001 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서울 종합전시장(COEX)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박람회의 주제는 “소비자와 함께 하는 우리 축산”으로 하고 보다 위생적이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리 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광우병이다 구제역이다 하여 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전염병이 발생한 것이 아닌지 또는 이러한 질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수입한 쇠고기, 돼지고기가 아닌지 걱정이 되어 축산물 먹기를 꺼려하는 소비자가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축산박람



오 봉 국

-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추진위원장
- 본회 고문

회를 통하여 우리 축산물의 안전성을 부각시켜 소비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 주최기관은 (사)한국낙농육우협회, (사)대한양돈협회, (사)대한양계협회, (사)전국한우협회와 (사)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여 주관은 한국국제박람회 추진위원회와 코엑스(COEX)로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축산박람회는 우리나라 모든 축산인이 참여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것입니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크게 나누어서 전시행사와 부대행사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현재 전시행사에서는 관련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첨단기술 보급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목적하에 국내외에서 개발된 새로운 축산기자재와 시설물이 전시되며 약 15개국에서 160여개 업체가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첨단생명공학 관련 제품과 정보시스템, 각종 사료, 동물약품, 축산물, 가공식품 등이 전시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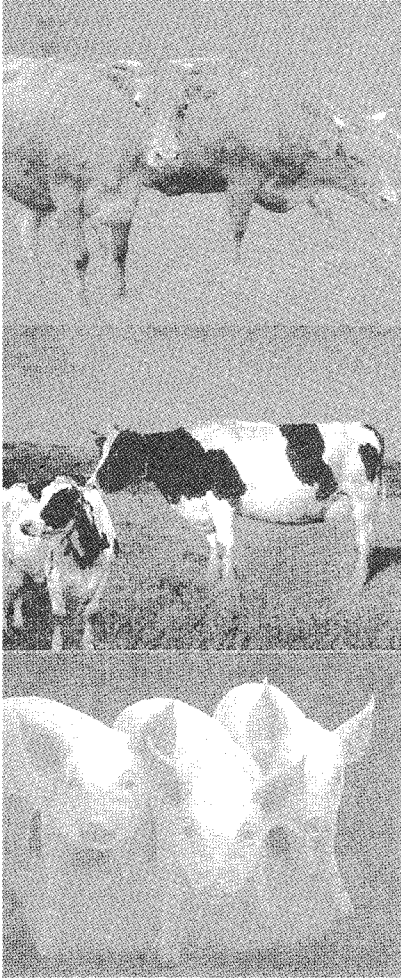
둘째, 부대행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축산물을 가지고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 보급하기 위한 우리 축산물 요리경연대회가 개최되며 한편으로는 위생적이며 안전한 축산물의 식별 방법과 간단한 요리 만들기 및 시식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안전 축산물 홍보를 위한 홍보관 설치와 운영 그리고 축산지도자와 소비자 단체대표와의 소비홍보 간담회 및 교례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술행사의 일환으로 축산인 대회와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으며 세미나 제목은 축산인들의 관심이 높고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논제를 설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21세기의 축산 정책방향」, 「축산자조금 사업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방안」, 「축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르는 대응방안」 등입니다.

축산인 대회에서는 새로운 축산경영기법으로 성공한 선도축산인과 우수기자재 업체를 선발하여 시상을 하며 축산인 궐기대회를 통해 대정부 건의와 우리의 다짐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축산박람회에서는 소비자를 겨냥한 축산물의 안전성





△2001 국제축산 박람회가 열릴 삼성동 코엑스(COEX)전경

홍보에 중점을 두고 국산 축산물의 차별화에 초점을 맞추어 축산 홍보관을 운영하게 되며 각 축종별로 환경친화적 축산업을 통한 위생적이며 안전성 있는 한국형 축산물의 생산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과정을 전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농민 홍보사업으로는 국립연구기관과 대학에서 새로히 연구개발된 제품과 기술을 전시하는 한편 민간연구기관에서는 새로운 영농기법과 경영평가기법을 축산인들에게 소개하며, 경영지도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축종별 생산자 단체에서는 다양한 볼거리와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며, 어려운 국내외 축산 여건하에서도 우리 축산업이 진행해야 할 과제와 방안에 대하여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여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슬기와 지혜를 모으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각 생산자단체나 축산업과 관련된 여러 기관은 각기 전문영역별로 연례행사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2001년 한국국제축산박람회 행사는 전국의 모든 축산인이 참여하고 축산업과 관련된 모든 업종단체와 기관이 동참하여 만남과 대화, 협력과 전진의 기회와 축제의 장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안정적인 축산발전과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각계 각층에서 수고하시는 축산인과 관련기관, 그리고 각 단체회원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2001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 물심양면으로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01년 7월 5일 코엑스(COEX) 전시장에서 만나 뵈옵기를 기대합니다. 양계